대한양계협회소식

전국 닭 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 3개 지역 성황리 개최

본회에서는 지난 5월 8일(안양), 10일(대전), 15일(경주) 3일간에 걸쳐 '전국 닭 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계농가들은 대상으로 가축질병근절에 대해 다섯 가지 세분화된 주제로 1)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대책(장기윤 농림부 가축방역과 서기관), 2) HPAI 감영경로와 농가 방역대책(이상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 과장), 3) ND 채혈활동 및 가축방역의 중요성(노천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무), 4) LPAI 백신접종 및 근절방안(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5) 농장에서의 마이코플라즈마 예방(한태욱 강원대 교수, 반 덴 보쉬 인터베트 기술고문) 순으로 진행되었다.(관련내용 120페이지)

육계자조금대의원 총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본회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한국계육협회 3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육계자조금대의원(의원장 이홍재) 총회가 지난 26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육계자조금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대전 홍인호텔에서 26일 개최될 예정이던 육계자조금대의원 총회가 재적인원 135명의 과반수인 68명에 2명 부족한 66명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대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여러차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대의원들의 참여열기가 감소하였고, 일부 계열사들이 의무자조금의 의지가 없어 계열농가 대의원들에게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사태파악에 나서는가하면 차후 성공적인 회

의개최를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들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자조금 사업을 성공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복경기를 앞두고 차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복경기 이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대의원 설득 및 홍보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기대했던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면서 차기 모임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개단체(양계협회, 농협, 계육협회)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자조금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란계자조금 추진회의 향후 3년간 월 200만수 수당 20원씩

산란계자조금 추진회의(위원장 김선웅)가 지난 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부화장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약 3년간 동안은 부화장에서 거출하고, 이후 집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부화장에서 거출시 의무자조금 납부를 월 200만수로 한정하고 수당 20원씩으로 정해 부화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제시된 채란인들의 의견사항은 향후 부화업계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충분히 뜻을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회장단 및 감사연석 회의 중소기업기준 상향조정 건의키로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가 지난 11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축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 대규모 축산업을 영위하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제 · 금융 · 기타 제도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시정하고자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 상향조정 대정부 건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논산종계지부 설치승인 검토'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전국양계인대회는 10월중 개최키로 하고 개최지는 사전답사 후 결정키로 하였다. 한편 금년 제2회 이사회는 5월 3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확정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D/C폭 감축시행 평가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 월례회의가 지

난 7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D/C폭 20원 감축시행(07. 4. 6)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형성되었다고 보고 농가와 유통 또한 시세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의 D/C폭 증가에 대한 우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오히려 혼동을 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에 흔들리지 말고 D/C폭을 유지해 주길 당부했다.

토의 및 보고 사항에서는 한 · 미FTA 협상결과와 정부의 대응방안 보고, 산란계 자조금 거출기관 지정관련 협의회 결과보고가 있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종계 · 부화장 관리지침 필요성 부각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가 지난 10일 평택 웨스트 호텔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종계DB사업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육용종계는 현재 714만6,470수로 사육수수는 증가한 반면 생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692만1,955수 대비 3.2% 증가했고 1월 666만77수 대비 7.3%증가한 것으로 64주령이상의 성계가 50% 감소한 반면 1~19주령의 육성계와 20~64주령의 성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4월 경제주령이상 생존수(환우계 포함)는 전월대비 45%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종계입식수와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가의 입추물량은 적어 유통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계도태가 지속적으로 지연 및 환유계군이 증가될 경우 복경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불법 종계 · 부화장 고발(신고)센터 진행사항 보고 이후 종계 · 부화장 관리지침서 제작 운영(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병아리품질소위원회 6월중 개최

병아리품질소위원회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 월례회의에서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 6월중에 병아리 품질과 관련하여 병아리 품질소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를 희망함에 따라 6월중에 협의를 거쳐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육계자조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결과 보고, 한미 · FTA 관련대책, 한 ·

EU FTA 협상개요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논의를 가졌다.

이달 통계자료에 따르면 육용종계 4월 종계 입식수수는 513,200수로 전년 동월 대비 24.0% 증가치를 보였으며 3월 육용종계사료 생산실적은 22,954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1.3% 증가했으며 육계사료 3월 생산실적은 146,594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치를 보였다.

[지부소식]

논산종계지부
현판식 개최, 30일 이사회 승인 후 공식 활동

논산종계지부(회장 안태엽)는 지난 2일 논산축협에서 지부 현판식을 가졌다.

논산지역은 24개 종계농가들이 40만수의 종계를 사육하고 있다. 종계로써는 처음으로 지부 설립을 한 논산종계지부는 초대 지부장으로 안태엽(정우축산 대표)지부장을 선출하였는데 안지부장은 "논산시종계지부의 설립을 계기로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국내 종계산업을 주도하는 지부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종계 회원을 비롯하여 임영봉 논산축협 조합장과 이규철 대한양돈협회 논산지부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논산종계지부는 5월 30일 본회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의 공식 승인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4.30 농림부 박해상 차관과의 간담회
5. 2 오리데이 행사
5. 3 산란계자조금거출기관 지정관련대표자 회의
5. 4 5월 편집위원회
5. 7 HPAI 방역기술 자문회의
5. 7 5월 채란분과위원회
5. 8 전국닭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
5. 9 제3차 농단협 대표자회의
5.11 2007 제3회 회장단 및 감사연석회의
5.17 한-EU FTA등 농업협상동향 설명회
5.17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월간양계 독자분들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 닭에 대한 이야기, 정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피소트 등…
분량 : A4용지 1.5매(10포인트)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